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7. 15.(화) 12:00
(지 면) 2025. 7. 16.(수) 조간

‘간부 모시는 날’ 등 불합리한 관행 타파 지속 노력

- 행정안전부·인사혁신처 합동 실태조사(2025.4.28.~5.9.) 결과 발표
-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 위해 현장간담회 개최, 집중신고기간 운영

□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‘간부 모시는 날’*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(2025년 4월) ‘간부 모시는 날’을 경험한 응답자는 11.1%로, 지난 조사(2024년 11월) 대비 7%p 감소했다고 밝혔다.

* 직원들이 ‘순번’을 정해 ‘사비’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함

※ 중앙 (‘24.11월)10.1%→(‘25.4월)7.7%로 2.4%p 감소, 지자체 (‘24.11월)23.9%→(‘25.4월)12.2%로 11.7%p 감소

○ 이번 조사는 중앙·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‘e사람’(중앙) 및 ‘인사랑’(지방자치단체)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, 총 11만 3,404명(중앙 2만 8,809명, 지방자치단체 8만 4,595명)이 참여했다.

※ 지난 조사(‘24.11월) 15만 4,317명 참여(중앙 6만 4,968명, 지자체 8만 9,349명)

□ 전체 응답자 중 32.8%는 지난 조사 후 ‘간부 모시는 날’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*하고 있으며,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‘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(42.9%)’을 꼽았다.

* 원래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48.1%

○ 모셨던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(과장급)이 75.9%로 가장 높았고, ‘간부 모시는 날’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‘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(35.8%)’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.

- 또한, 전체 응답자의 75.6%는 ‘간부-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’고 응답해, 상하 간 소통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- 그간 행정안전부·인사혁신처·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조사(2024년 11월) 이후, ‘간부 모시는 날’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와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관 차원의 개선을 권고했으며, 범정부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해 중앙·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.
- 특히, 국민권익위원회는 관행적 부패·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(2025년 5월~7월)을 운영 중이다.
- 더불어, 충청남도 청양군은 ‘간부 모시는 날 제로화’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‘행정 PRO(Perfect·Reduce·Open) 운동’을 추진하고,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간부회의 시 관련 내용을 공유·논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“전자인사관리시스템(e-사람) 내 익명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-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“‘간부 모시는 날’ 등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하여,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‘일할 맛 나는 공직환경’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	책임자	과 장	문지영 (044-205-22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재현 (044-205-2243)
	인사혁신처 복무과	책임자	과 장	김재선 (044-201-8440)
		담당자	서기관	정승진 (044-201-8444)

참고

'간부 모시는 날' 관련 실태조사 결과

설문조사 문항	설문조사 답변	중앙(명)	자치체(명)	전체(명)
		28,809	84,595	113,404
1. 최근 1개월('25.4월) 내 '간부 모시는 날'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? (직원들이 '순번'을 정해 '사비'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 의미)	① 예	7.7% (2,228명)	12.2% (10,329명)	11.1%
	② 아니오	92.3%	87.8%	88.9%
2. 만약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, 그 빈도는 어떻게습니까? (1의 ①응답자)	① 주 1~2회	33.7%	48.3%	45.7%
	② 월 1~2회	48.9%	38.8%	40.6%
	③ 분기별 1~2회	12.9%	9.9%	10.5%
	④ 연 1~2회	4.4%	3.0%	3.2%
3. 만약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, 간부의 직위는 어떻게습니까? (복수) (1의 ①응답자)	① 팀장급	12.3%	8.3%	9.0%
	② 부서장(과장급)	75.1%	76.0%	75.9%
	③ 국장급	25.1%	42.8%	39.6%
	④ 실장급 이상	4.9%	4.3%	4.4%
4. 지난 조사결과 공개('25.1월) 이후 '간부 모시는 날'이 줄어들거나 근절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	① 늘어났음	1.0%	1.1%	1.1%
	② 변화 없음	16.1%	18.7%	18.1%
	③ 줄어들고 있음	21.2%	36.7%	32.8%
	④ 원래 없었음	61.7%	43.5%	48.1%
5. '간부 모시는 날'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4의 ①, ② 응답자)	① 기관장(단체장) 등 간부의 관심 부족	9.7%	9.1%	9.2%
	②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	26.0%	38.7%	35.8%
	③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	9.0%	10.3%	10.0%
	④ 간부가 인사 및 성과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	34.9%	18.9%	22.5%
	⑤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	16.3%	18.9%	18.3%
	⑥ 구내식당이 존재하지 않는 등 기관 소재지의 특성	1.0%	1.9%	1.7%
	⑦ 기타(주관식)	3.1%	2.3%	2.5%

6. 귀하가 소속된 기관은 '간부 모시는 날'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? (복수)	① 기관장, 부기관장(단체장, 부단체장)의 근절 지시	26.2%	30.4%	29.3%
	② 근절 관련 내용 전파	24.5%	34.0%	31.6%
	③ 간부급 대상 근절 교육	12.1%	15.7%	14.8%
	④ 자체 실태조사 실시	9.7%	15.7%	14.2%
	⑤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	7.9%	10.1%	9.6%
	⑥ 신고센터, 신고게시판 등 운영	10.2%	7.7%	8.3%
	⑦ 아무런 조치 없음	41.4%	31.5%	34.0%
7. '간부 모시는 날' 근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	①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	41.4%	43.4%	42.9%
	② 기관장(단체장)의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	22.7%	17.0%	18.5%
	③ 범정부 차원의 '간부 모시는 날' 근절 캠페인	6.6%	5.2%	5.6%
	④ 간부-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 확대	10.6%	13.4%	12.7%
	⑤ 자연스러운 혼밥 문화, 더치페이 문화 등 식사 관련 문화 변화	15.4%	18.9%	18.0%
	⑥ 기타(주관식)	3.4%	2.0%	2.3%
8. 간부-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	① 예	73.9%	76.2%	75.6%
	② 아니오	26.1%	23.8%	24.4%
9. 식사시간 외에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복수)	① 소규모 티타임 활용	46.7%	50.3%	49.4%
	② 다양한 직급·연차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개최	14.7%	14.9%	14.8%
	③ 자유로운 소통 확대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교육	27.8%	31.3%	30.4%
	④ 소통을 위한 날 지정	6.8%	9.0%	8.4%
	⑤ 소통 기회에 사용할 수 있는 부서장 수당 확대	12.2%	13.9%	13.5%
	⑥ 동호회, 체육활동 등 함께할 수 있는 행사 마련	18.2%	12.7%	14.1%
	⑦ 기타(주관식)	5.0%	4.3%	4.5%